

“리테일·中企대출·플랫폼 부문 집중 투자”

‘30일 상장’ 케이뱅크 비전 발표
1조원 이상 자금유입 효과 기대
대출상품 유형·규모 확대에 사용
‘업비트 독과점’ 관련 우려에
예치금 줄어 뱅크런 가능성 낮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발판삼아 비
대면 금융 혁신의 속도를 높여겠다.”

케이뱅크 최우형 은행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상장 이후 사업계획과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2017년 4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는 7년 6개월여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한다. 공모규모는 총 8200만주, 주당 희망 공모가는 9500원~1만2000원으로 희망공모가 범위 상단 기준 공모금액은 9840억원이다.

최 행장은 이번 상장으로 1조원 이상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모 유입자금에 더해 상장완료시 7250억원의 과거 유상증자 자금이 추가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BIS) 비율 산정 때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며 “상장에 따라 1조원 이상의 자금유입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이후 사업 계획과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상장으로 유입된 자금은 대출상품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리테일 ▲중소기업대출(SME) ▲플랫폼 등 세가지 부문에 집중해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 행장은 “리테일 부문은 경쟁력을 갖춘 요구불 예금과 고객 니즈에 맞춘 특화 수신상품을 출시해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늘릴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저원가성 예금을 확대해 효율적인 자금조달구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개인사업자(SOHO)와 중소기업대출(SME) 상품도 확대한다.

최 행장은 “현재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대출상품이 출시돼 있고,

매일 1000건이상의 대출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내년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담보대출상품을 확대하고 이후에는 법인 소기업 중기업까지 영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오픈 에코시스템 전략을 앞세워 플랫폼 사업도 확대한다. 오픈 에코시스템은 각 산업부문의 선도기업과 다양한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채권, 금과 은 등 원자재, 외환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부터 대체불가능토큰(NFT), 명품, 예술품 등 새로운 자산과 대체 투자영역을 아울러 투자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 행장은 이날 가상자산 투자 플랫

폼 업비트 독과점 관련 우려와 관련해 의존도 및 예치금 비중이 줄어 대량자금인출(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2021년 12월 53%였던 업비트 고객의 예금 비중이 올해 상반기 17%까지 낮아졌고 예치금 비중도 2021년에는 절반이 넘었으나 전체 수신 규모 22조원 가운데 3조 정도로 줄었다”며 “이 예치금마저도 대출 재원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와 같은 염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16일까지 진행중인 수요예측을 거쳐 이달 18일 공모가를 확정한다. 일반 청약은 21일부터 22일까지이며, 공모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상장일은 오는 30일이다.

최 행장은 “케이뱅크는 ‘생활속의 케이뱅크 혁신투자 허브’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며 “공모자금을 리테일과 SME, 플랫폼이라는 3대 부문과 리스크 관리 및 기술(Tech)에 활용해 상생금융과 혁신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카드 News

삼성카드 신세계 신백리워드 카드 이용금액 최대 3% 적립

삼성카드가 신세계백화점 특화카드를 공개했다.

삼성카드는 15일 ‘신세계 신백리워드 삼성카드’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고객 혜택을 ‘신백리워드 포인트’로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다. 전월 이용 실적 및 적립 한도 없이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최대 3%를 적립할 수 있다.

국내·외 가맹점에서 이용한 금액의 0.5%를 기본으로 적립한다. ▲신세계백화점 ▲음식점 ▲주유 결제 시에는 1%, ▲대중교통 ▲택시 ▲제과·아이스크림 ▲편의점 결제 시에는 적립 비중을 1.5%로 상향한다. 주말에는 적립률을 2배 높인다.

롯데카드 오케이몰X디지로카 40만원 쓰면 1.2% 할인

롯데카드는 15일 ‘오케이몰X디지로카’ 카드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전월실적 4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국내의 모든 가맹점에서 1.2%를 할인한다.

카드 발급 첫해에는 연간 카드 이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오케이몰에서 50만원 이상 결제 건에 3만원을 추가 할인한다.

연말까지 오케이몰에서 20만원 이상 결제 시 6·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연회비는 2만원이다. 디지로카앱과 오케이몰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KB국민카드 KB페이 이용객 대상 미식여행 지원금 제공

KB국민카드는 KB페이 이용 고객 대상으로 포인트리와 캐시백을 제공하고 항공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말일까지 ‘최대 300만원 득템하고, 가을 미식 여행 고고!’를 운영한다. 응모 후 스타샵 적립가맹점에서 KB페이로 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 ▲미식여행 지원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등이다.

같은 기간 ‘할인받고 하늘 나는 기분! 국제선 항공권 최대 12만원 즉시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장거리 10%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모든 노선 5% 할인한다.

금리 인하기 역풍... 보험사, CSM 감소로 건전성 경고등

(보험계약마진)

보험사 ‘금리하락이 미치는 영향’
지급여력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
내년 보험산업 성장성 둔화 예고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보험사의 건전성에 악재가 터졌다. 내년도엔 보험업계의 성장성이 둔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보험 흑반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인하에 따라 보험사들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금리 인하를 받기 싫은 업권 중 하나다. 금리가 내려갈수록 보험이익과 자산운용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급여력비율(K-ICS)도 하락해사다.

보험연구원원이 지난 2월 발표한 ‘금리하락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하락 시 신규 보험계

약의 경우 보험계약마진(CSM) 감소로 보험이익 역시 감소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장기금리의 영향이 큰 현금 유출액 현재가치가 현금유입액 현재가치보다 증가해 CSM이 감소한다. 신규 자산의 이자수의 감소로 장기적으로는 투자이익 또한 하락한다.

특히 금리 하락은 지급여력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K-ICS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용으로 금리 하락 시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게 증가한 보험사의 경우 자본 감소로 K-ICS 비율이 하락한다.

기존 지급여력비율이었다던 RBC의 경우 보험부채 원가평가 적용으로 금리 변동 방향과 반대로 변화했으나 K-ICS는 금리 변동 방향과 유사하게 변화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지

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 국내 보험사들의 K-ICS 비율이 일제히 하락한 바 있다. 22곳의 생명보험사 중 16곳, 19곳의 손해보험사 중 12곳이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추가 하락으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원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p) 하락하면 생보사 K-ICS 비율은 25%p, 손보사는 30%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K-ICS 도입 이후 기준금리가 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존 RBC 구조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면 건전성이 높아졌겠지만 K-ICS는 부채에 대한 시가 평가를 해야 하므로 평가 방식 자체가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채에 대한 시가 평가

부분에 따라 금리 인하는 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와 함께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내년도 보험산업 성장성이 둔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건전성 악화와 성장성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보험산업이 흑반기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0일 열린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내년 보험업계 초회보험료가 전년 대비 9.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할 전망이지만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이 감소해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한강뷰 로또단지에 1.6만명 청약... 특공 경쟁률 557대 1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4세대 경쟁률 1493대 1

한강뷰가 가능한 알짜 입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오면서 특별공급 청약에만 1만6000명이 넘게 몰렸다.

15일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전일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을 진행한 결과 30세대 모집에 1만6724명이 접수했다. 평균 경쟁

률은 557대 1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4세대를 모집한 신혼부부에 597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493대 1로 집계됐고, 6가구를 모집한 생애최초 역시 6043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1000대 1을 웃돌았다.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단지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대 수방사 부지에 지상 최고 35층 5개동, 55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서울 중심지인데다 한강조망까지 가능한 입지라 사전

청약 당시에도 경쟁률이 세자릿수를 기록한 바 있다.

총 556세대 가운데 공공분양 주택은 263세대다. 전용면적은 모두 59㎡다. 당초 사전청약 당첨자 224가구 중 211가구만 본청약을 신청하면서 52세대에 대한 청약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타입과 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9억원 안팎이다. 인근 래미안 트윈파크는 59㎡가 지난 8월 15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아파트 투시도.

/홍페이저

/김정산 기자 kimsan119@